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 안무를 위한 예술기반 실행연구[†]

정희정* 창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를 위한 사전연구로 예술기반 실행연구(Art-based Action Research)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안무 개념과 안무 방법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기획→전문가 심층 면담 (7명)→이론적 검토(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 운동감각적 공감) →안무 개념 및 안무 방법 탐색→장애-비장애 무용수 워크숍(5명)→안무 개념 및 안무 방법 정립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작품 〈모모댄스〉 안무 개념의 배경이 되는 ‘몸과 움직임의 다양성’ 개념은 개인 정체성에 따른 움직임, 무대 위의 평등, 환경-과제-무용수의 상호작용으로부터의 움직임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안무 개념(Action-Reaction)과 감각 자극 기반 과제(공간, 힘, 소리)가 정립되었다. 이는 움직임을 통한 관계 형성과 움직임을 ‘듣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의미로 개념화되었다. 참여무용수들은 안무 과제 수행을 통해 장애-비장애 무용수 간 동등한 관계적 움직임을 발전시키고, 협업 과정을 통해 예술적 통찰과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장애-비장애 경험 차이와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접근이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장애예술, 장애무용, 안무개념, 안무, 예술기반 실행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예술의 중요한 쟁점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형식과 예술적 표현을 넘어, 주체의 확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박신외, 심규선, 주명진, 2018; 정희정, 2024; Knight, 2006). 장애예술은 이러한 예술의 다양성 구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장애를 다양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제시하는 미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Keifer-Boyd, 2017). 그러나 담론을 넘어, 장애예술가의 창작 과정과 이를 공연 예술로 구현하는 예술적 실천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를 가진 몸의 고유한 감각과 서사를 예술적 주제로 하는 장애예술(전지영, 2021)에서 무엇을, 어떻게 작업할지를 둘러싼 실질적 고민과 방법론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예술적 실험이 요구된다. 장애연극 단체 극단 「애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배우의 훈련과 연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비장애 중심의 미학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실험하고 있다. 장애무용가 김원영(2024)은「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에서 자신의 무용 창작 과정에서 실험된 방법론을 기술하며 장애를 가진 몸이 독창적 움직임 언어와 관객과의 관계적 미학을 형성하는 주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장애예술의 방법론에는 단일한 정당도, 고정된 형태도 없다. 예술적 고민과 실천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현한다. 예술적 실천을 위해서는 장애예술의 담론과 더불어 창작 과정에서 존재를 다루는 방식, 작업의 관점, 그리고 표현의 방법론을 탐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무용에서 장애인의 몸은 예술창작과

[†] 이 논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창작의 과정 #공연예술 사전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창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교수, cooljoun@snu.ac.kr

표현의 주체로서 비장애인 중심의 무용 예술계에서 동등하게 부각 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의 몸과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한다(김현정, 2015). 김아롱과 조은숙(2022)은 장애무용 작품을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의 '수행성의 미학(Performativity Aesthetics)'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장애를 가진 몸은 단순히 고정된 기호로 소비되지 않고, 탈 기호화(de-signification)를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과 몸의 잠재성을 탐구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 안무를 위한 사전연구로 사회적·예술적 고정관념과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몸과 움직임에 주목하고 이를 무대화하는 방법론을 탐구하고자 한다.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 김정숙 역, 2017)는 몸의 표상과 정체성은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신체와 사회·문화적 맥락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며, 이를 통해 예술적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장애가 있는 몸이 사회·문화·예술적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그 몸은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는 춤추는 몸과 움직임의 소수자성을 중심에 두고, 이를 몸과 움직임의 다양성과 연결하여 확장된 미학적 가능성과 표현을 탐구하고자 한다. 창작 과정과 표현 방법론 논의에 있어, 국내 안무법 연구들은 안무법의 특성, 안무 구성 요소, 그리고 움직임에 담긴 정체성, 문화적 배경,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며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해왔다. 김지영(2011)은 시나위 안무법에서 시간, 공간, 힘이라는 3요소를 중심으로 전통적 미학과 현대적 창작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신창호(2013)는 미니멀리즘의 반복적 특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문화적 이질감을 완화하고, 무용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또한, 손정현과 이미영(2024)은 뉴미디어 시대 광고에서 무용 예술을 활용하여 상업적 맥락에서 예술성과 효과를 동시에 구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안무법과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안무법 개발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조정희와 조기숙(2014)은 실기기반연구법과 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무용수의 몸 주체성 인식을 기반으로 안무 과정을 탐구하고, 창작자와 무용수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장애무용에서는 장애 무용수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경험을 반영하며, 창작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안무 방법론이 요구된다(정희정, 2024). 본 연구는 예술기반 실행연구(Art-based Action Research)를 통해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를 위한 안무 콘셉트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안무 방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술기반 실행연구는 예술적 활동과 창작 과정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이론적 고찰과 실천을 통합하고, 새로운 지식과 실천 방식을 창출하는 연구 방법(Leavy, 2020)으로, 본 연구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장애무용 안무와 작업 방식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모모댄스〉의 안무 콘셉트 배경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작품 〈모모댄스〉의 안무 콘셉트는 무엇인가?

셋째, 작품 〈모모댄스〉의 안무 방법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예술기반 실험연구 구조(Jokela & Huhmarniemi, 2018)를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단계별 연구 진행 과정은 <표 1>과 같다. 첫째, 예술기반 실험연구는 조직이나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연구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몸과 움직임’ 개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무용, 장애무용, 인체공학, 연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는 주제에 대한 각 분야의 통찰을 반영해 연구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둘째, 예술기반 실험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실천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실천 방식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과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Stimulus-Response Freedom to Choose Model, Mujtaba, 2008)과 운동 감각적 공감(Kinesthetic Empathy, Foster, 2011) 이론을 검토하여 안무 개념과 안무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안무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예술기반 실험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축하고, 이를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무 방법의 적용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검토를 위해 무용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장애 무용수와 비장애 무용수 간의 무용 창작 경험과 경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장애 무용수 워크숍(4회), 비장애 무용수 워크숍(4회), 통합 워크숍(3회)로 설계되었으며, 집단별 워크숍에서 도출된 피드백이 통합 워크숍에 반영되도록 구조화되었다. 워크숍 종료 후 심층 면담을 통해 안무 방법에 관한 참여무용수 경험을 알아보고, 드라마트루그는 관찰자로 참여하여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심층 면담, 관찰 일지, 현장 일지, 연구 일지를 분석하여 안무 개념과 안무 방법을 정립하였다.

표 1 . 연구 진행 흐름



2. 작품 〈모모댄스〉 기획 의도

최근 다양한 몸에 대한 수용이 확장되고 있지만, 미디어와 무대에서는 여전히 ‘정상’인의 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몸은 ‘비정상’이나 ‘이상한’ 몸으로 구별되며, 소수의 몸은 타자화되고 소외된다(강진숙, 김동명, 2019). 작품 〈모모댄스〉는 "다양한 몸 × 다른 움직임 = 확장된 새로운 아름다움"을 표방하며, 장애를 가진 몸을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예술적 주체로 바라본다. 장애와 비장애 무용수가 함께하는 무대는 서로의 경험과 감각이 교차하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관계적 수행의 장으로 기능한다. 작품 〈모모댄스〉는 이러한 수행적 전환을 통해 몸과 움직임의 다양성을 조명하고,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과 질문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기획되었다. ‘모모(Momo)’는 ‘움직이는 순간(Moment of Movement)’을 뜻하며, 춤추는 몸과 움직임의 다양성을 평등하게 드러내는 안무적 방법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유목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전문가 집단과 무용수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전공 및 경력은 〈표 2〉와 같다. 첫 번째 집단은 다양한 몸과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였다. 인간공학 전문가 3인은 A 대학 연구실 소속 교수 1인과 연구원 2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신체와 움직임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무용 전문가 2인은 무용을 전공하고 현재 안무가 및 드라마트루그로 활동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무용 작품 창작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애무용 전문가 1인은 지체장애 예술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다수의 장애무용 작품에서 안무가 및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 전문가 1인은 15년 이상의 배우 및 연극 교육자로 활동하며,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신체극 창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다. 두 번째 집단은 안무 콘셉트와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워크숍 참여무용수 5인으로 이루어졌다. 장애 무용수 2인은 B 무용단체의 소속 무용수로, 2개의 무용작품에 무용수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뇌성마비 장애가 있다. 비장애 무용수 3인은 무용을 전공하고, 10년 이상의 무용 안무 및 출연 경험을 보유한 안무가이자 무용수이다. 이들은 장애 무용수와의 협업 경험은 없으나, 다양한 움직임 연구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전공 특성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전공 및 경력(년)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전공 및 경력(년)
전문가 집단	인간공학 전문가 1	남	45	기계공학 (25)	무용수 집단	장애 무용수 1	여	36	현대무용 (3)
	인간공학 전문가 2	남	33	기계공학 (13)		장애 무용수 2	여	51	현대무용 (3)
	인간공학 전문가 3	남	29	체육학 (7)		비장애 무용수 3	여	43	현대무용 (23)
	무용 전문가 4	남	48	현대무용 (28)		비장애 무용수 4	남	42	현대무용 (22)
	무용 전문가 5	여	41	현대무용 (21)		비장애 무용수 5	남	31	현대무용 (11)
	장애무용 전문가 6	남	43	공연/무용 (10)					
	연극 전문가 7	여	45	연극/교육 (16)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하였으며 전문가 심층 면담 자료 6건, 참여무용수 심층 면담 자료 11건, 연구자의 자기 반성적 현장 일지, 연구 일지, 드라마트루그의 관찰 일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수

집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심층 면담 자료는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은 집단별 각각 1회씩(1회 약 90~100분) 실시되었고, 연구개요와 면담 질문을 사전에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 확장을 유도하며, 추가 질문으로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면담 자료는 음성으로 녹음되었으며, 연구자가 녹음 파일을 반복 청취하며 직접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는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단위들을 추출하고 이를 공통성과 연관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반복 비교를 통해 중복 항목을 정리하고, 안무 콘셉트 및 방법론 개발에 필요한 개념과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딩 결과는 드라마트루그와 상호 검토를 진행하였다. 둘째, 참여무용수 심층 면담 자료는 장애 무용수 워크숍 4회, 비장애 무용수 워크숍 4회, 통합 워크숍 3회, 총 11회의 워크숍이 각각 종료된 직후에 수집되었다. 면담에서는 안무 콘셉트와 방법의 타당성, 적용 과정의 경험, 수행 중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면담은 각 워크숍 종료 직후 집단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은 음성으로 녹음되었다. 연구자는 각 면담 종료 후 직접 전사를 수행하였고, 참여자의 발화 맥락을 유지하면서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필요한 경우 문어체로 정리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실천적 분석(Practical Analysis)(Patton, 2014)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안무 방법의 타당성과 수정 방향을 도출하고, 워크숍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여 안무 방법의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무 방법의 이해 및 수용’, ‘수행상 어려움’, ‘관계적 경험’, ‘개선제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범주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발화, 실험 경험의 감정적·신체적 반응, 구체적 제안 등을 기반으로 도출되었으며, 내용 간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비교하여 안무 방법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제 적용 평가 과정에서 드라마트루그는 워크숍에 관찰자로 참여하여, 연구자의 시각과는 차별화된 관찰자적 관점에서 느낀 점과 의견을 관찰 일지에 기록하였다. 이 관찰 자료는 제3자의 독립적 관점에서 워크숍의 타당성과 참여자의 변화를 평가하는 역할을 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자기 반성적 현장 일지와 연구 일지뿐만 아니라, 드라마트루그의 관찰 및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 과정과 참여자의 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및 워크숍 종료 후 현장 일지를 작성하여, 음성파일로 기록하기 어려운 정황적 정보와 참여 무용수의 특징, 활동 과정에서 얻은 통찰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 일지는 단계별 주요 과정을 기록하고,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 연구 중 얻은 통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진행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하였다. 연구자의 일지는 자기 반성적 분석(Self-Reflexive Analysis, Patton, 2014)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과장되거나 왜곡된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기술 및 분석 과정에서 판단중지를 사용하여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해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드라마트루그는 연구자의 해석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분석 내용을 교차 점검하여 해석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uncan(2004)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구성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무용교육 전공 교수 1명, 무용학 전공 박사 2명)에게 연구의 코딩, 내용, 자료 삽입이 연구 주제를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검토받았다. 둘째, 외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무용 교육과 공연 경험이 있는 동료 2명(무용학 박사과정 1명, 무용학 석사 졸업 1명)에게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검토받아, 연구가 장애무용 안무 과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셋째, 자료의 삼각검증을 위해 심층 면담 자료와 자기 반성적 자료 외에도 드라마트루그의 관찰 자료를 포함한 다각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류동춘 등(2017)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다음을 실천하였다. 정직성으로 연구 내용, 방법, 절차,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하였다. 개방성으로 연구 방

법, 데이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모두 포함하였다. 주의깊음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였으며, 코딩 내용은 연구자와 동료자 간의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연구대상 존중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었으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비밀준수로 연구 자료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여 익명성을 확보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작품 〈모모댄스〉의 안무 콘셉트 배경

작품 〈모모댄스〉 안무 콘셉트의 배경이 되는 ‘몸과 움직임의 다양성’ 개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 개념은 개인 정체성에 따른 움직임, 무대 위의 평등, 환경-과제-무용수 간 상호작용에서의 움직임으로 범주화되었다.

1)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에 따른 움직임

개인의 키, 근육 발달, 골격 형태 등 신체적 조건은 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움직임의 범위와 질감을 규정하며 가능성을 확장하거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몸을 중심으로 하는 무용에서 움직임의 형성과 표현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무용작품에서 표현의 다양성은 단순히 몸의 형태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무용수의 춤추는 몸은 개인적 경험, 무용 훈련, 성격 등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며, 기존의 방식과 담론을 드러내고 이를 춤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하는 주체적 매개체로 작용한다(조정희, 조기숙 2014). 몸과 움직임의 다양성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동의하였다. 예술 분야 연구참여자들은 형태적 다름에서 비롯되는 움직임의 다양성보다, 개성적인 움직임을 유발하는 내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용 전문가들은 무용수의 움직임은 감정, 주제, 의도, 생각 등이 예술가들의 재해석을 거쳐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무용수 개인의 정체성이 개성적 움직임의 본질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김재리(2017)는 무용수의 몸이 스스로 행위하며 정체성을 구성하는 ‘행위주체성(Agency)’을, 서현주(2018)는 개인적 경험이 몸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Roche(2011)는 무용수의 내면적 경험과 신체 구조가 움직임 형성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움직이는 정체성(Moving Identity)’으로 개념화하였다.

독특성은 몸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자기 몸 보다는 자기의 성격, 배경,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나죠. 물론 몸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뭉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여러 요소들이 10%씩 보여지면서 채워지는 것 같아요.(무용전문가 5)

그게 연습 과정에서 축적된 것일 수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자기 안의 재해석을 통해 나오는 어떤 과정들이 있죠.(연극전문가 7)

반면, 인간공학 분야 참여자들은 환경과의 적응에 주목하며 움직임의 형태를 다양성의 중심으로 보았다. 두 관점은 신체적 조건, 내재적 조건, 환경적 맥락이 움직임을 구성하고 확장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몸과 움직임의 다양성은 생리적·신체적 특징에 국한되지 않으며, 내재적 조건과 환경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

인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몸과 움직임은 무용수의 정체성을 외현화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고유한 언어로 기능한다.

2) 무대 위의 평등

‘장애’는 개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해된다. 문영민(2016)은 공연예술에서 ‘장애’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으로 겪는 경험과 감각, 사회적 맥락이 예술적 표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무용 안무가는 자신의 몸과 움직임을 ‘다름’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평가를 내포함과 동시에, 개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몸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불구하고’는 가치평가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장애 무용작업은 무엇이라면 그 ‘불구하고’를 무대위에 올리는 작업이에요. 그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그냥 공연적으로 세공을 해서 무대 위에 올리는 거죠. 그것을 감추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무대위에 올리는 거죠.(장애무용 안무가 6)

그는 “장애무용 작업은 ‘몸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에서 ‘불구하고’를 무대 위에 올리는 작업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그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움직이며, 자신의 몸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신만의 움직임을 찾게 하였다. 또한, 무용수가 자신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순간과 관객이 만나는 지점을 ‘선명한 순간’으로 설명하며, 무용수가 자신의 진실된 움직임에 집중할 때, 형태적 다름은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관객은 장애가 있는 몸이 담고 있는 한 사람의 내러티브에 공감하는 것이며(김원영, 2024), 이는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미적 교감을 전달하는 수행적 과정(Erika Fischer-Lichte, 김정숙 역, 2017)이다. 박신의(2019)는 장애 무용수의 몸짓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언어이고, 그것은 조형언어의 확장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무용작품에서 모든 무용수의 몸과 움직임을 다양성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다양한 몸과 움직임을 평등성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한다.

3) 환경(Environment)-과제(Task)-무용수(Dancer) 상호작용으로부터의 움직임

움직임은 주어진 환경의 물리적 제약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그 형태와 의미를 변화시킨다. Bernstein(1967)은 인간 움직임의 변동성을 다양한 환경적 요구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정의하며, 인간은 환경 속에서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을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인간공학 분야 연구참가자들은 움직임은 맥락적 상황과 주어진 과제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다른 움직임’은 ‘변동성(variability)’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물리적 환경과의 작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 안정적 상태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따른 움직임 변동성과도 관련이 있다. 환경-과제-무용수 간의 상호작용은 적응과정을 통해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나 개인 상황 조건이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궤적의 형태를 보는데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가다가 다른 어떤 조건이 생기면 그때부터 천차만별로 변해요.(인간공학 전문가 3)

메타 피지컬 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체. 조건들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아요...(중략)...실험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르고, 테스트에 따라 다들 달라지고 그러니 결국 움직임은 계속 변하는 거죠.(인간공학 전문가 2)

예술 분야 연구참가자들은 안무 과정에서 외적 자극에 대한 무용수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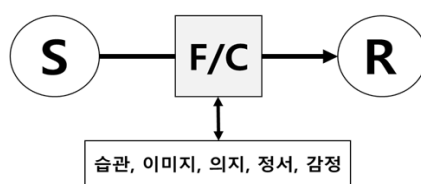
요소와 과제 조건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탐구한다고 하였다. 이는 움직임이 단순히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적극적 행위임을 보여준다(Albright, 1997).

2. 작품 〈모모댄스〉의 안무 콘셉트

안무콘셉트 탐구 연구에서는 몸과 움직임의 다양성에 관한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이론을 순환적 분석하여 안무 콘셉트 및 안무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Stimulus-Response Freedom to Choose Model)

본 연구에서는 안무 콘셉트를 실현하기 위한 안무 방법으로 '감각적 반응'을 선택하였다. 감각적 반응은 장애-비장애 무용수에서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무용수 간 상호작용과 공감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한다(정희정, 2024). 감각자극은 무용수에게 단순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의 내적 세계를 외현화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Albright, 1997).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은 고전적 자극-반응 모델의 단순 인과론적 설명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인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공간(Freedom to Choose)'이 존재함을 제시하며(그림 1), 반응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한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맥락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 가치, 감정 등 복합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Covey, 1989). 이는 감각적 반응이 무용수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내재적 경험이 반영된 개인 정체성에 따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과 환경-과제-무용수 간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임이 단순히 환경에 순응하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적 해석과 표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지한다. 이에 본 작품의 안무 콘셉트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무용수들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구현하는 움직임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반영된다고 보았다. 이는 무용수 개개인이 선택과 창작의 주체로서 자극과 상호작용하며, 움직임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지지한다. 이 모델을 무용수의 감각 자극에 적용하면, 자극(감각자극)과 반응(움직임) 사이에서 무용수는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을 선택하여 움직임으로 구현한다. 예를 들어, 음악 자극이 주어졌을 때 무용수는 음악의 박자와 리듬에 맞춰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음악 자극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반영해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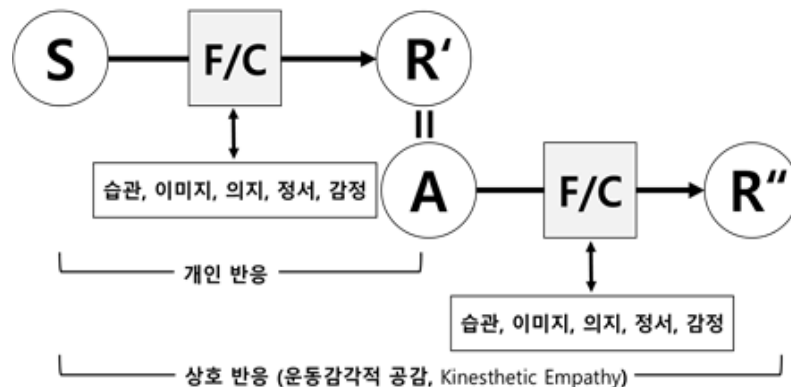
S, Stimulus(자극); R, Response(반응); F/C: Freedom to Choose(선택의 공간)

그림 1. 자극-반응 선택 모델

2) 안무 콘셉트 탐색: Action-Reaction

작품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안무 콘셉트는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핵심 가치인 개별성(모든 무용수의 몸과 움직임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다), 평등성(모든 몸과 움직임이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상

호작용(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움직임 표현을 확장하고 발전시킨다)과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몸과 움직임을 가진 무용수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표현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안무 콘셉트 'Action-Reaction'을 〈그림 2〉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 접근은 무용수 간의 공감을 촉진하고, 새로운 안무적 가능성을 탐색하며, 모든 무용수가 작품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S, Stimulus(자극); R', Response(반응); F/C: Freedom to Choose(선택의 공간); A, Action; R'', Reaction

그림 2. Action-Reaction 안무 콘셉트 개념도

Action-Reaction 안무 콘셉트는 개인 반응과 상호 반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용수 간 상호 반응 과정에서 타인의 움직임을 자신의 신체적 감각으로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운동감각적 공감(kinesthetic empathy)(Reynolds & Reason, 2012)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자극(S)에 대한 반응(R')은 개인의 습관, 이미지, 의지, 정서, 감정 등 선택의 공간(F/C)을 거쳐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움직임 반응(R')은 타인의 움직임(A)에 다시 자극으로 전달되고, 이는 상호적 반응(R'')을 유도하는 새로운 반응 양상을 형성한다. 즉, 'Action'은 무용수의 움직임에서 출발하며, 이는 고유한 자극으로 다른 무용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Reaction'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무용수의 경험, 감정,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움직임을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무용수들은 자극을 제공하는 주체이자 반응하는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교차적으로 수행하며,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과 표현을 창작한다. 이러한 콘셉트는 장애 무용수가 비장애 무용수의 동작을 단순히 따라 하거나, 비장애 무용수가 장애 무용수를 돕는 수동적 방식이 아닌, 창작 과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평등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

이 안무 콘셉트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은 정체성과 감각적 해석이 반영된 비언어적 언어로 이해되므로, 안무 과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경청'하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청은 단순히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움직임이 내포하는 의미와 정서를 신체적으로 '듣는' 경험을 포함한다. 무용수는 상대의 움직임을 '듣고' 비언어적으로 '대답'하는 대화적 과정을 통해, 자극을 주는 주체(화자)와 자극을 받는 수용자(청자) 역할을 주고받는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무용수 간의 비언어적 대화를 형성하며 관계적 움직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Action-Reaction의 안무 콘셉트는 움직임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관찰하거나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운동감각적 공감이 나타난다고 본다. 운동 감각적 공감은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움직임의 질과 정서를 체화하고 정서적·감각적 연결을 형성한다(Reason, 2010; Foster, 2011). Foster(2011)는 이를 '몸의

공명(bodily resonance)’으로 설명하며, 움직임을 매개로 한 비언어적 소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ction-Reaction 안무 개념트는 타인의 움직임을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고 이를 자신의 움직임에 반영하며 상호 정서적 연결과 공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작품 〈모모댄스〉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확장된 새로운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 된다.

3. 작품 〈모모댄스〉 안무 방법

본 안무 방법은 공간, 힘, 소리를 주요 감각 자극 요소로 활용하였다. 공간과 힘은 기존의 움직임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과제를 본 작품의 안무 개념트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였고, 소리 과제는 연구 과정에서 새롭게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안무 방법의 적용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장애 무용수 워크숍(4회), 비장애 무용수 워크숍(4회), 통합 워크숍(3회)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1) 공간반응

(1) 과제: 랜덤 워킹(Random Walking)

공간 반응을 탐구하기 위해 사용된 안무 과제는 랜덤 워킹이다. 무용수들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과 주변의 공간적 관계를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유도되었다. 이 과제의 목표는 무용수 움직임이 형성하는 공간적 패턴과 다른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다. 개별 작업 단계에서는 무용수가 자신의 리듬과 속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무용수들이 공간 안에서 자신의 위치 변화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반응 단계에서는 무용수 간의 ‘주고받음’에 중점을 두고, 다른 무용수의 움직임을 ‘듣고’, 그 움직임에 반응하는 자신만의 움직임을 표현하도록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는 자극이 곧바로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무용수가 감정, 감각, 의지(F/C)에 따라 반응을 선택하는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용수들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움직임과 연결되는 상호작용적 움직임을 탐구하였다.

(2) 적용: 신뢰와 공감으로 연결된 공간

참가 장애무용수들은 뇌성마비로 인해 방향 전환이 어렵고, 특히 ‘뒤로 걷기’는 짧은 보폭으로 인해 균형 유지와 움직임의 연속성이 제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랜덤 워킹에 앞서 방향을 주제로 한 3단계 이동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과제는 방향을 선택하고, 시선을 그 방향으로 보내며,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무용수들이 방향 전환에 익숙해지도록 도왔다. 이 과정은 장애유형별 특징에 따른 방법의 조정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니 내가 편한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니 평소에 하지 않았던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2차 장애 무용수 워크숍, 참여무용수 2)

생각의 차이가 어떤 연결됨, 응집성을 발현시키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 무용수와 함께 해보아야 집단성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장애인 무용수의 움직임이 비장애인의 움직임과 ‘다르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3차 장애 무용수 워크숍, 드라마트루그)

비장애인 무용수 워크숍에서는 안무 개념트의 ‘듣기’와 ‘반응’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었다. 이는 기

존 랜덤 워킹 과제가 주로 공간 인지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과정을 대화적 개념으로 수행에 어색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존 공간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소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보면서도 보는 중간에도 이게 단순히 잘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된 것 같아요.(1차 비장애 무용수 워크숍, 참여무용수 5)

통합 워크숍은 집단별 워크숍을 통해 안무 콘셉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은 후 진행되었다. 무용수들은 서로의 이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장애인 무용수들은 이동과 주고받음을 통해 공동의 공간을 공유했다고 진술했고, 장애 무용수들은 ‘이해해주는 마음’, ‘같은 마음이 통하는 바다’ 등으로 표현하며, 주고받는다는 목표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 있는 이동’이라고 하였다. 특히, 비장애인 무용수들이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상호작용 자체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간의 공유가 정서적 교감으로 확장된 것으로, 무용수들이 타인의 움직임 자극을 감각과 정서를 기반으로 해석하고 자율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의 선택의 공간(F/C)이 작동하고, 그 결과 타인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적·정서적 반응을 통해 운동감각적 공감이 형성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Foster(2011)는 운동감각적 공감이 무용수와 관객 간 소통뿐 아니라 무용수들 간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Sheets-Johnstone(2010)은 움직임을 통한 공간 인식이 신체와 환경 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랜덤 워킹 과제는 무용수들 간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고 집단적 관계성을 촉진하는 〈모모댄스〉 작품의 안무 방법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선(눈 맞춤)을 안 했던 것과 시선을 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 공기가 썩! 바뀌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연결된다는 느낌. 진짜... 알갱이가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연결되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 자체로 하나의 공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통합 워크숍 2차, 드라마트루그)

2) 힘 반응

(1) 과제: ‘힘 주고받기’, ‘보이지 않는 공 주고받기’

힘 반응 과제는 ‘힘 주고받기’와 ‘보이지 않는 공 주고받기’이다. 힘은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감각이다. 힘을 주제로 한 접촉즉흥(Contact Improvisation)은 상대방의 움직임의 질을 상상하고 내면화하여 이를 해석하거나 확장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변환하도록 한다(이나현, 김말복, 2015). 즉, 힘은 촉각적 경험을 통해 움직임의 질과 의미에 관한 구체적인 상상을 가능하게 하고, 감각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내적 감각을 외현화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힘’에 대한 세밀한 지각과 주고받기의 반복은,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에서 선택의 공간(F/C)을 통해 개별적 감각적 반응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작업 단계에서는 힘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나누어 설명하고, 양손을 마주 대고 1부터 10의 세기로 밀고 당기거나, 공을 쥐고 같은 방식으로 공을 미는 작업을 통해 힘의 강도를 지각하도록 했다. 이후 이동 동작과 즉흥 움직임에 힘의 강도 개념을 적용하여 움직임의 질을 조절하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이 과제는 ‘힘’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신체적 경험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상호작용 단계 ‘보이지 않는 공 주고받기’에서는 무용수 간 힘의 주고받음을 중심으로, 다른 무용수의 움직임을 듣고 이에 반응하도록 지침을 제공했다. 이 과제에서는 직접 접촉보다 상상적 표현을 활용하여, 무용수들이 자극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통해 내면을 탐구하고 고유한 움직임을 발

견하도록 유도했다. 상상적 표현은 즉흥무용에서 창의성과 개인적 내러티브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로, 무용수들에게 움직임의 자유를 부여하며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한다(정희정, 김태훈, 2014).

(2) 적용: 관계적 움직임

집단별 워크숍에서 개별 힘 지각 과제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힘의 강도를 1-10으로 구분한 접근법은 ‘약하게’, ‘세게’와 같은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 지각을 이끌어냈다. 참여무용수들은 힘의 단계적 접근이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참여무용수 1은 “힘의 스펙트럼을 상상하고 움직일 수 있어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하였고, 참여무용수 3은 “힘이 감정의 세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았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지각이 움직임 표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힘 주고받기’ 과제에서는 힘을 움직임의 질로 전환하거나 주고받음에 응용하는 데 모호함이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무용수 집단은 끈을 잡고 당기고 밀어보는 활동, 미러링 등 추가 과제를 통해 상대의 힘을 물리적으로 체험하며 상호작용의 개념을 <그림 3>과 같이 구체화했다. 또한, 비언어적 대화를 강조하기 위해 아이컨택과 미러링 과제를 추가로 진행하여 ‘주고받음’과 ‘듣기’라는 개념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힘주고받기



3-2. 미러링

그림 3. 장애 무용수워크숍 ‘주고받기’ 추가주제

통합 워크숍에서는 집단별 워크숍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공 주고받기’ 과제를 수행했다. 처음에는 공의 크기와 무게를 상상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의 움직임을 신체와 감각으로 수용하며 움직임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언어적 대화로 발전하며 공동의 움직임 언어를 형성하며 관계적 움직임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무용수들은 ‘반응’에 중점을 둬으로써 익숙하거나 잘하는 움직임, 학습된 동작을 반복하기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을 ‘듣고’ 이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더불어, 참가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며, 비장애인 무용수가 장애 무용수를 리드하거나, 배려하는 모습 없이, 모든 무용수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느낌이 달랐어요. 각자 색깔이 다르잖아요. 각자 춤이 다르고, 무용수 3의 흰색하고, 녹색이 섞이는 느낌이었어요.(통합워크숍 3차, 무용수 2)

저는 무용수 2와 하면서 짙은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걸 느꼈어요. 특별한 순간. 내가 주가 되었다가 그걸 말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주고 받는 거. 서로의 움직임이나 감정이 얽힌다는 어떤 쾌감 같은거요.(통합 워크숍 3차, 무용수 3)

이러한 안무적 실천은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를 신체로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운동

감각적 공감(Foster, 2011)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무용수 개개인의 움직임이 단순히 개인적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힘 과제는 작품 〈모모댄스〉의 안무콘셉트인 평등성과 운동감각적 공감이 춤으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안무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소리 반응

(1) 과제: ‘소리×움직임’

소리 반응 과제는 무용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움직임으로 나타낸다는 점과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무용수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공하고자 고안되었다. 이 과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내면 감정을 ‘소리’와 ‘움직임’으로 연결하여 표현하여 움직임의 질과 표현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강력한 도구로 리듬, 강약, 질감이 움직임의 질을 강화하며 타인과의 감각적 교감을 가능하게 한다(Bläsing & Zimmermann). Lambert(2019)는 소리가 단순한 소리 이상의 감각적, 심리적 경험을 전달하며, 관객과 퍼포머 사이에 감각적 연결을 구축한다고 하였다. 개별 작업 단계에서는 자신의 여러 소리를 실험하는 소리 내는 과제를 진행하였다.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마주 앉아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과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용수들은 자신의 소리로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소리에 반응하며 소리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자신의 소리와 움직임을 결합하여 표현하는 과제와 힘 과제를 결합하여 소리와 힘을 주고받는 과제로 확장되었다.

(2) 적용: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로의 전환

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 각각의 워크숍에서 과제의 수행 결과는 서로 다른 반응과 관찰점을 제공하며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주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참가자들은 발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적 제약을 넘어선 소리와 움직임의 결합이 감정과 내면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Lambert, 2019). 참가 장애 무용수들은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과 원하는 움직임을 자유롭게 구현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소리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그들은 특정 감정이 ‘소리’라는 매개체를 만나면서 보다 유창하게 발현되었고, 움직임 표현의 제한이 소리를 통해 확장되거나 보완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하였다. 참가장애 무용수 2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소리와 움직임으로 “쏟아내는”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녀의 표현은 단순한 소리와 움직임의 결합을 넘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감정을 ‘해방’시키는 과정처럼 보였다. 이는 소리가 개인의 감정을 구체화하고 표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움직임 표현이 매우 정확하고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동물적인 소리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동물들도 자신들만의 소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우리는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두 개체가 뭔가를 주고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잖아요. 소리라는 것이 움직임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소리가 보다 원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 것 같아요.(장애 무용수 워크숍 4차, 드라마트루그)

반면, 비장애인 무용수 워크숍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비장애인 무용수들은 ‘소리로 대화를 한다’는 콘셉트에는 흥미를 느꼈지만,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에 대한 고정관념과 심리적 부담을 얻

급했다. 비장애인 무용수들은 소리에 어울리는 움직임을 찾거나, 움직임에 어울리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소리에 맞는 ‘무용적인’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였으며, 두 사람이 소리와 움직임을 주고받는 과제에서는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머릿속의 ‘말’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 “삐용~”, “후우우~~” 하는 소리랑 움직임을 하는게 편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면서 맞춘다는 생각에 일부러 “비촉방바직~”리하면서 일부러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내가 ‘말’ 보다는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게 더 편했구나. (비장애인 무용수 워크숍 3, 무용수 3)

통합 워크숍에서 비장애 무용수들은 장애 무용수들이 내면의 감정을 소리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에 동화되었고, 그 소리에 이끌려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타인의 신체 표현을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운동감각적 공감의 작동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의 소리는 단순한 음향 자극을 넘어 감정과 내면의 상태가 담긴 표현으로 작용하며, 이는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 선택의 공간(F/C) 속에서 타인의 소리에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자신의 정서와 연결된 움직임으로 해석해 표현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워크숍에서 소리와 움직임이 교차하며 이루어졌고, 점차 힘 과제와 결합되어 소리와 힘을 주고받는 과제로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용수들은 자신의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개별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인의 소리와 움직임에 반응하며 관계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Bläsing & Zimmermann, 2021). 따라서, ‘소리×움직임’과제는 <모모댄스> 작품의 주제를 실현하는 안무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과제 실행 과정에서 장애와 비장애 무용수 간 경험 차이를 고려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비장애인 무용수들에게는 소리와 움직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고, 학습된 동작 틀을 넘어 자유로운 표현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랑 했을 때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 같이 했을 때는 바다. 같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통합워크숍 3, 무용수 2)

하다 보니까 내가 내는 소리에 움직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움직임에 맞춰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왔다 갔다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변의 소리를 듣고 다르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순간 순간 제가 선택을 하면서 소리와 움직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용수 2와 제가 같이 하고 있는거죠.(통합워크숍 3, 무용수 3)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의 안무 콘셉트를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안무 방법의 실현 가능성과 적용 방안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몸과 움직임은 개인 정체성이 체화된 표현으로, 주체의 개별성이 평등성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무대 위에서 드러날 때 새로운 다양성의 미학을 구현할 수 있다. 장애무용에서 무용수의 몸과 움직임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기존의 미적 기준을 넘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무용의 가치를 재해석할 수 있다. ‘환경-과제-무용수’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움직임 표현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며, 환경과 과제에 대한 주체의 반응 과정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

언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모모댄스〉 작품 주제는 ‘다른 몸과 움직임은 확장된 아름다움 보여준다’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Action-Reaction’ 안무 개념을 채택하였다. 자극-반응 자유 선택 모델에 기반한 이 개념은, 무용수 각자가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 경험을 반영한 고유한 움직임을 구현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다시 타인에게 자극으로 작용해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운동감각적 공감은 작품 주제인 ‘확장된 아름다움’을 안무로 구체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는 장애-비장애 무용수 모두가 안무 과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안무 개념 ‘Action-Reaction’을 기반으로 ‘공간’, ‘힘’, ‘소리 반응’이라는 세 가지 안무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장애 무용수, 비장애 무용수, 그리고 통합 워크숍에 각각 적용하였다. 과제들은 움직임 다양성을 촉진하며, 장애와 비장애 무용수 모두에게 실현 가능한 타당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안무 과제는 무용수 간 관계성과 공감을 강조하고, 워크숍 과정에서 운동감각적 공감 형성에 효과가 있었다. 감각 자극과 반응을 통한 안무 과제는 무용수들의 개별성과 평등성을 체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안무 개념과 방법에 대한 무용수의 이해와 합의 과정은 움직임의 질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실천적 발견은, 집단별 워크숍을 통해 무용수들이 안무 개념과 과제에 익숙해진 후 통합 워크숍을 진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무용수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협업 과정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비장애 무용수의 경험 차이를 고려한 접근법과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방법이 안무 작업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점과 이러한 접근이 장애-비장애 협업 과정을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안무 개념 ‘Action-Reaction’과 감각 자극 기반 안무 방법이 장애-비장애 무용수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며,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했다. 또한, 운동감각적 공감은 수행성 이론의 관점에서 공연자와 관객 간 관계 및 공연의 의미로 확장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전 단계 연구로, 실제 공연 안무 과정이나 공연과 관객의 관계는 다루지 못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작품과 관객, 작품과 사회 간의 관계와 의미는 탐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모모댄스〉를 위한 안무 개념과 방법론을 개발한 것으로, 모든 장애무용 작품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장애무용에서 몸과 움직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감각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안무 방법의 이론적 틀과 적용 과정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장애무용 안무 방법론 개발과 새로운 연구 방향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진숙, 김동명(2019). 장애인 관련 영상제작자 및 활동가들의 ‘소수자-되기’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래피 연구: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과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1), 286-324.
- 김원영(2024).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몸을 위한 변론. 파주:문학동네 .
- 김아롱, 조은숙(2022). 동시대 장애예술 공연에 나타난 수행성 (Performativity)-[시선] 과 [젠틀 유니콘] 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 연구**, 87(3), 27-44.
- 김지영(2011). 시나위 안무법에 관한 연구_시간, 공간, 힘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학회**, 29(1), 209-233.
- 김재리(2017). 퍼포먼스 아카이브의 현재성: 컨템퍼러리 무용의 실천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44, 185-211.
- 김현정(2015). 캔두코 무용단의 작품에 나타난 장애무용의 의미. **무용예술학연구**, 57(6), 1-18.

- 류동춘, 정원섭, 이승희, 김영훈, 김영심 (2017).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방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7(1), 245-269.
- 문영민(2016). **장애 공연예술은 장애 정체성과 어떻게 공명하는가?**. 함께 걸음, 326호, 84-8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
- 박신의(2019). **한국의 장애예술, 새로운 접근과 확산을 위하여**. 삶과 문화 74, 16-21.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 손정현, 이미영(2014). 뉴미디어 시대의 광고 안무법에 대한 고찰: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1' 서울편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2(2), 125-140.
- 서현주(2018). 춤의 경험과 주체성: 안은미의 「몸 시리즈」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6(2), 57-68.
- 신창호(2013). 미니멀리즘의 반복성 안무법에 나타난 사실적 해석 연구_신창호의 〈No Comment〉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2), 109-122.
- 이나현, 김말복(2015). 접촉 즉흥 방법론에 나타나는 리즘적 특성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52(1), 69-83.
- 전지영(2021).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의 개념 논의-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32, 195-215.
- 조정희, 조기숙. (2014). 무용수의 '몸 주체성' 인식에 기반한 안무자의 작품분석: 무용작품〈Walk〉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35, 235-261.
- 정희정(2024). 안무가의 장애무용 안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24(3), 127-142.
- 정희정, 김태훈(2014). 즉흥무용에서 상상적 표현의 의미-콜링우드(Collingwood) 이론을 바탕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2(4), 239-255.
- Albright, Ann Cooper(1998). Strategic Abilities: Negotiating the Disabled Body in Dance. *Disability, Art, and Culture*, 37(3), 56-66.
- Bläsing, B., & Zimmermann, E. (2021). Dance is more than meets the eye—how can dance performance be made accessible for a non-sighted audience?. *Frontiers in psychology*, 12, 643848.
- Covey(1989).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 Erika Fischer-Lichte(2017). *Ästhetik des Performativen*. (김정숙 역) 수행성의 미학 현대예술의 혁명적 전환과 새로운 퍼포먼스 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Foster, S. (2010). *Choreographing empathy: Kinesthesia in performance*. Routledge.
- Duncan, M. (2004). Autoethnography: Critical appreciation of an emerging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4), 28-39.
- Jokela, T., & Huhmarniemi, M. (2018). *Art-based action research in the development work of arts and art education*. The lure of Lapland: A handbook of Arctic art and design.
- Keifer-Boyd, K. (2017). *Creativity, disability, diversity, and inclusion*. In *Handbook of arts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Routledge.
- Knight, W. B. (2006). Using contemporary art to challenge cultural values, beliefs, and assumptions. *Art Education*, 59(4), 39-45.
- Lambert, R. (2019). *Movement through Language: A Reflection on the Use of Spoken Text in Dance Performance*. Critical Stage, Issue no 20. <http://www.critical-stage.org.20/>
- Leavy, P. (2020). *Method meets art: Arts-based research practice*. Guilford publications.
- McNiff, S. (2008). *Art-based research. Handbook of the arts in qualitative research*. Perspectives, methodologies, examples, and issues, 29-40.
- Mujtaba, B. G. (2008). Interpersonal change through the "inside-out-approach": exercising the freedom to choose our responses during conflict and stressful situations. *RU International Journal*, 2(1), 1-12.
- Patton, M. Q. (2014).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 Roche, J. (2011). Embodying multiplicity: the independent contemporary dancer's moving identity.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2(2), 105-118.
- Sheets-Johnstone, M. (2010). *The Primacy of Movement*. John Benjamins Publishing.

ABSTRACT

Art-Based Action Research for the Choreography the Disability Dance work 〈Momo Dance〉[†]

Heejoung Jou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s preliminary research for creating a dance piece, used an Art-based Action Research methodology to develop choreographic concepts and methods. The process included the following steps: planning → expert interviews (7 participants) → theoretical review (Stimulus-Response Freedom to Choose Model, kinesthetic empathy) → establishing choreographic concepts and methods → workshops with dancer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5 participants) → finalizing the findings. The study found that the body and movement express individual identity, while interactions between dancers and their environment-or with each other-create a new movement language and foster kinesthetic empath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ction-Reaction" choreographic concept and sensory-based tasks (space, force, sound) were developed. These tasks promote interaction through unique movements and frame movement as non-verbal communication, like "listening." Participants developed equitable, relational movement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dancers, gaining artistic insights and exploring new possibilities through collaboration.

Key words : disability arts, disability dance, choreographic concepts, choreography, art-based action research

논문투고일: 2025.02.19

논문심사일: 2025.03.28

심사완료일: 2025.04.10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art council Korea.

* Research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port Science Laboratory